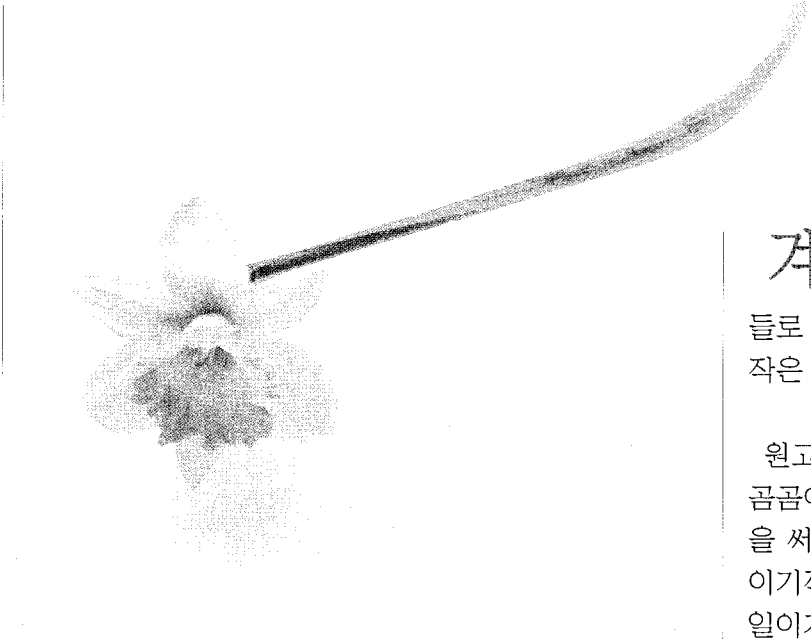


絶望, 그 끝에서 나에 대한 성찰



계절의 여왕 이라고 하는 5월도 지나가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와 있는 이즈음 산으로, 들로 배낭매고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이들의 작은 소망일 것이다.

원고의뢰를 받고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 곰곰이 생각하던 중 근래 있었던 나의 힘들었던 시간을 써보면 나 자신은 한결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어찌면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감히 펜을 들어보려 한다.

절망, 그 끝에서

“하느님께서 송부장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모양이군.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뜻이지”라는 윗분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왔다.
그제서야 직원들의 얼굴들도 보이고 봄날의 햇살도 따사로이 느껴졌다.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게 마련.
당시도 처음에는 모든 일이 순풍에 돛 단 듯 술술 풀려 나가고,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갔다.

내심 “그럼, 그렇지..., 느낌이 좋은걸...”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었고 부서원 모두도 결과에 대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맡은바 임무에 충실을 기하면서 일은 진행되어 나갔다.



■ 클 송인규 부장
에너지솔루션즈 에너지사업부

一言

유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였던 우리로서는 별 어려움 없이 그 끝을 볼 수 있었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늘 행복한 일상이기를 바란다.

드디어 결과 발표일...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이런 아픔일까 싶을 만큼 커다란 충격과 함께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풍성한 열매’만 꿈꾸며 당연해야 한다는 희망은 나를 비웃고 나의 곁에서 멀어져갔다.

깊은 수렁~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려 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지는 상념...

하루 그리고 이틀... 이렇게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찬란한 봄의 햇살 또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절망, 그 끝에서

“하느님께서 송부장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모양이군.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살라고 하는 뜻이지!”라는 윗분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왔다.

그제서야 직원들의 얼굴들도 보이고 봄날의 햇살도 따사로이 느껴졌다.

찬찬히 돌이켜 보건대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경솔했다는 것을 인지했고, 타성에 빠진 매너리즘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로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제서야, 지금의 이 결과가 진정 당연한 결과구나라는 생각에 이르자 얼굴이 붉어지고 쥐 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지금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 지면으로나마

